

잇따른 문고본시리즈로 출판계 새 국면

문지스펙트럼·작은책문고 등 경쟁 치열... 전문성·차별화로 야심찬 기획

‘정중동’의 90년대 문고본 시장에 한바탕 회오리가 불어닥칠 조짐이다. 90년대의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기존 문고시리즈 외에 한울의 〈시민을 위한 작은 문고〉과 보리의 〈보리 작은책문고〉가 이미 첫삽을 떴고, 문학과지성사의 〈문지스펙트럼〉과 한길사의 〈로로로시리즈〉는 연내 출시를 목표로 작업 중이다. 또한 펜앤루북에서는 영국 펍킨북스의 〈펍킨클래식〉 시리즈를 계약, 출간하는 등 외국 유명 문고시리즈의 도입도 활발하다.

70년대와는 사뭇 다른 양상

〈문지스펙트럼〉은 문학과지성사가 기획한 야심찬 문고시리즈로 고급독자를 지향하는 기존의 출판방향에서 폭을 넓혀 대학생을 주된 독자로 설정했다. 기존 문고의 목록구성에 기획력이 약한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차별성을 갖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한다.

한국문학·외국문학·문화마당·지성의 광장·세계산문선·지식의 초점·세계의 고전 등 일곱개 분야로 수백권을 퍼낼 생각이다. 일련번호와 디자인의 차별화로 분야를 구별해서 오는 11월 11권을 한꺼번에 출시할 예정이다. 〈문지스펙트럼〉의 가세로 90년대 문고본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출판사간의 선의의 경쟁도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90년대의 문고는 크게 ‘교양’ 문고와 ‘전

문’ 문고로 나뉜다. 교양문고의 대표주자는 〈창비교양문고〉. 85년 12월 《한국현대시선 1,2》가 첫 테이프를 끊었지만 2년의 공백을 갖고 91년부터 출간이 활발해진다. 최근 41번째로 〈불멸 속의 사람들〉이 나오면서 문고출간을 본격화할 움직임이다.

책의 크기도 B6 판형으로 기존의 문고판보다 크다. 이런 외형상의 변화 말고도 내용면에서도 90년대 문고를 대변한다. 문학·역사·과학·예술 등 여러 분야를 폭넓게 다루는 것은 기존의 문고와 다르지 않다. 다만, 한국 근대문학에서 정본을 지향하는 것과 세계명작 소개에서 올바른 번역을 추구하는 점이 90년대답다. 곧 전문성을 추구한다.

《만세전》《태평천하》《삼대》는 ‘창비판’을 얻은 한국 근대소설이고, 《더블린 사람들》《살림》《빌레프》는 새롭게 번역 텍스트를 얻었다. “우리말 번역본이 없거나 기존 번역에 문제가 있는 세계명작을 꾸준히 목록에 넣겠다”고 교양문고를 전담하는 고은명씨는 말한다. 《루신 소설선》《올리버 트위스트》《이해조 선집》이 출간을 기다리고 있다.

‘가격파괴’도 90년대 문고시리즈의 또다른 특징. 가격을 끌어내리는 가격파괴가 아니라 높은 가격정책을 통해 ‘문고=박리다매’라는 등식을 여지없이 깨버린다. 문고시리즈의 가격파괴는 〈시공 디스커버리〉가 주도했다. 한권의 책값이 6천원. 문고로는 꽤 비싼 편이다. 컬러삽화의 비중이 커 제작단

90년대 문고시장에 한바탕 회오리가 일 조짐이다. 기존의 문고시리즈 외에 굵직한 출판사들이 ‘문고시리즈’를 기획, 출판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기에 해외유명 문고시리즈의 소개도 활발해지면서 독자층의 다양한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과연 90년대 문고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을 수 있을까.



최근 출판사들이 ‘문고시리즈’를 기획, 90년대 문고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런데도 독자층의 호응이 높아 각권당 1만부 이상 나갔다.

해외 유명 문고시리즈의 소개도 활발

도서출판 펜앤루북스(대표 조수경)에서는 영국 펍킨북스의 〈펍킨클래식〉 시리즈를 출간하기로 하고, 먼저 8권을 내놓았다. 세

계명작을 대상으로 하는데, 카뮈의 《여름》, 체호프의 《수도승의 전설》, 보카치오의 《테카메론》이 이번에 나온 작품들이고, 180권을 출간할 예정이다. 해외 유명 문고시리즈의 소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작은책’이라는 애칭을 달고 나온 문고시리즈는 내용이 좀더 전문적이다. 〈보리 작은책문고〉와 한울의 〈시민을 위한 작은책〉

국내최초의 종합출판정보 서비스

출판정보 일인일

■ 구독료 안내(주1회 발행)

6개월 구독시 ▶ 12만원

12개월 구독시 ▶ 20만원

■ 담당 : 김혜경

연락처 : TEL. (02)271-0494

FAX. (02)271-0495

1. 전국 일간지 출판기자 100여 명과 격일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기껏 너댓 종류의 신문스크랩만으로 자료조사를 끝냈다고요? 국내 최초의 종합출판정보자료집 「출판정보」는 전국 60여 개 일간지와 중요 주간지의 출판기사를 스크랩하여 제공합니다.

2. 21세기의 새로운 화폐는 정보입니다

출판인을 위한 유일한 종합정보지 「출판정보」는 기획, 독자시장, 마케팅 흐름, 출판계동향, 신간정보, 지역정보, 해외정보 등 출판에 꼭 필요한 것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전문서비스매체」입니다.

3. 무료 서비스는 꼭 필요한 것만을 제공합니다

· 모든 기사를 검색하여 볼 수 있는 기사검색프로그램과 검색데이터 제공

· 자사의 중복기사를 따로 스크랩하여 팩스로 전송

· 보관용 바인더 제공과 신간정보 무료 게재

발간형식 : 주1회(매주 금요일) 판형 및 분량 : 4·6배판 약 180여쪽 발송방법 : 우편발송

◆궁금하신 분은 지금 연락하여 주십시오. 무료로 1권을 보내 드립니다.

청소년이 읽을 만한 책

출협 선정 '이달의 청소년도서' 12종 발표

대한출판문화협회 이달의 청소년도서 선정위원회는 1996년 6·7월(제145·146차)분 청소년도서 12종을 선정, 발표했다. 이달의 청소년도서 선정, 보급사업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청소년 대상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84년 6월부터 격월로 실시해오고 있다. 선정된 도서는 청소년 선도기관, 공공도서관, 직업훈련원 등 전국 300곳에 무료로 증된다. 선정된 도서는 다음과 같다.

《멋진 인생을 위한 7가지 지혜》(이수원, 현대문학) 《3학년 3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신수원, 푸른나무) 《내 삶의 가

장 소중한 선택》(전국 검정고시동문회, 오촌) 《21세기 과학 어떻게 오는가》(아서 S. 고레고르, 우리시대사) 《우리 과학 한번 만나 볼래?》(아르카디 레옌, 우신사) 《그러나》(홍성원, 문학과지성사) 《한국문학 이해의 길잡이》(조동일, 집문당) 《꿈꾸는 초상》(황주리 외, 재원) 자연을 노래한 조형시인 김환기(윤난지, 재원) 《마음 속의 잉카》(김혜순 외, 한양출판) 《난중일기》(이순신, 예림당) 《우리 역사의 여러 모습》(이기백, 일조각)

범우사 창립30주년

범우사(대표 윤형두)는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9월 21일(토요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갖는다. "2000년대를 향하여 꾸준히 양서를"이란 기치 아래 좋은 책 만들기에 전념해온 범우사의 조출한 자축의 장인 이 자리에서는 제6회 범우출판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및 제11회 독후감 현상모집 시상식도 있을 예정이다.

전국 독자 시낭송대회

전국 독자 시낭송대회 본선이 9월 23일(월요일) 오후 1시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문학의 해 조직위원회(위원장 서기원)가 주최하고, 문화체육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공동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지역예선을 통과한 독자 30명이 참가한다.

본선에서는 참가자 자선시 1편, 지정시 1편 등 2편의 시를 낭송하여 자웅을 가리게

된다. 시상 내역은 대상 1명에 상장과 상금 100만원, 금상 2명에 역시 상장과 상금 80만원 등 본선 참가자 전원에게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

독서문화가족 한마당

한우리 독서문화운동본부는 9월 22일(일요일) 올림픽공원 제3체육관 및 잔디광장에서 '96독서문화가족 한마당을 연다. 행사내용은 ▲독서가족문화광장 ▲독서경진대회 ▲독서의 달 기념식 등이다.

특설코너설치

을지서적(대표 방용남)은 한가위를 맞아 9월에서 30일까지 특설코너를 마련한다. ▲'추석선물을 책으로'(문학부) ▲한가위 준비는 이렇게(문학부) ▲영화화된 우리 문학 작품전(문학부)

이 그들. <보리 작은책문고>는 도서출판 보리(대표 김미혜)가 교육 담당자와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교육의 관점을 심어주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표현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취지로 펴내고 있다.

지금까지 3권을 선보였는데, 그 가운데 《58년 개미》는 가난함 속에서도 깨끗하고 의연한 삶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서정홍 시인의 시집. 쉬운 우리말로 쓴 시편마다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발산한다. 《골리앗 공화국》은 공장의 기름 냄새를 물씬 풍기는 만평집이다. 현대엔진에서 일하는 노동자 이재관씨가 파업소식지와 노보 등에 그린 만평모음이다. 《일하는 사람들의 글쓰기》는 노동자 글쓰기의 당위성과 글쓰는 방법을 밝힌 책이다.

한울에서 올초부터 펴내기 시작한 <시민을 위한 작은책>은 크리스찬 아카데미 산하 한국사회교육원이 엮어내는 시민강좌다. "부적 논의가 활발해진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논의를 쉽게 전달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편집을 맡은 오현주씨는 말한다. 이제까지 《한국 시민사회의 이해》《지방화와 지구화 그리고 시민운동》《탈냉전시대 아시아 시민운동의 과제》《일본 시민운동과 지방자치》 등 네권을 선보였다.

<대안문화총서>(대화출판사)도 <...작은책>과 같은 맥락의 기획시리즈. 크리스찬 아카데미와 총서기획팀의 공동기획으로 21세기 신문명을 염두에 둔 실천논리의 개발이 목적이다. 분야별 전문가의 연구결과와

토론으로 엮었다. 영화·방송·연극·출판·대중음악·컴퓨터 분야의 작업은 이미 마쳤고, 앞으로 만화·미술·주민자치·생태윤리 등의 영역에도 접근할 계획이다.

한편 야심찬 기획으로 출발했다가 다소 의욕이 꺾인 경우도 있다. 《저녁노을》《삼십년에 삼백년을 산 사람은 어떻게 자기 자신일 수 있을까》로 힘차게 시작한 <당대문고>의 발걸음이 주춤한 것이 단적인 예. "'작은책'이라기보다는 지성 있는 교양서로 기획했지만 비중이 덜한 책으로 과소평가 받는 것 같다"고 당대의 문부식씨는 말한다. 결국 <당대문고>로 기획한 《역사의 이름》과 《무언의 로망스》는 판형을 키워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90년대 문고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아직 유보적이다. 다양한 교양지식과 고급한 디자인, 저렴한 가격이라는 90년대 독자층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각 출판사마다 뚜렷한 개성화와 전문화로 승부를 걸어야 할 것 같다.

—최성일 기자

어학교재·학습지 디자인의 뉴 페이스

"그게 그거잖아!"
항상 되풀이되는 디자인, 베끼기 디자인에 싫증나신 분,
"어디, 새로운 거 없나?"
좋은 책을 빛내 줄 참신한 디자인을 찾으시는 분,
어학교재·학습지 전문 디자인 집단 다음기획은
이런 분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다음기획, 뭔가 다른 기획입니다

DR

표지 및 본문 디자인 / 어학교재·학습지 디자인 / 일러스트 / 전문교필·교정

다음기획

DRUPH Publication Design Planning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38번지 성지빌딩 1208호
TEL: (02)707-0572 FAX: (02)707-0573

문장에도 숨구멍이 있습니다

숨구멍이 막힌 문장은 생명 없는 책이 됩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원고,
어쩔지 깔끄러워 잘 읽히지 않는 번역원고,
몇 군데 숨길만 튀워 주면 좋은 책이 될 원고,
다음기획은 이런 원고들의 숨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프로다운 리라이팅으로 쉽표 하나까지 섬세하게 다듬어 드립니다.